

남북협력동향

(2007. 9. 29 ~ 12. 14)

■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(10. 4, 통일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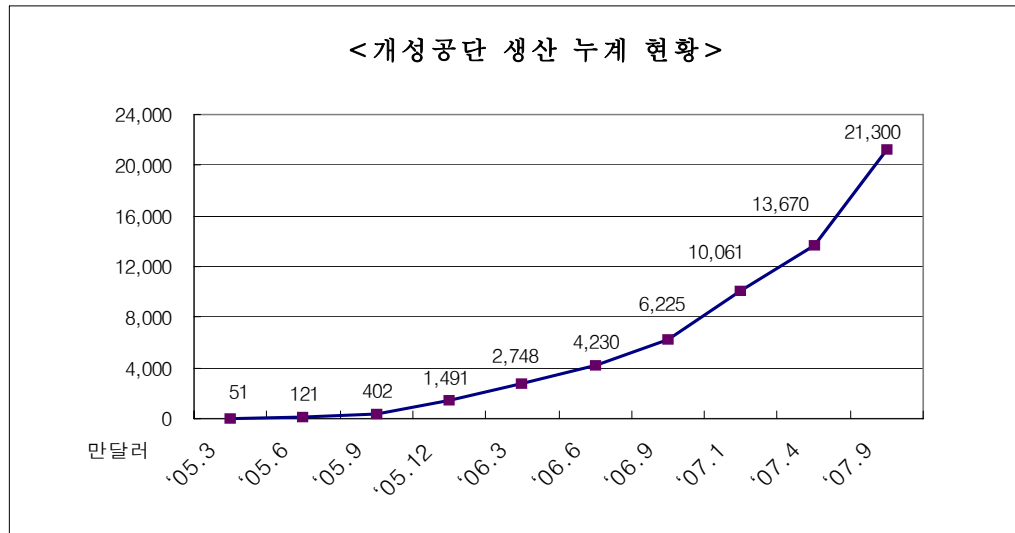
- 남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('07. 10. 2~4일)하고, 「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」을 발표

□ 주요 합의내용

- 경제협력 부문
 -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'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' 설치
 -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,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,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,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
 - 문산-봉동 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
 - 개성-신의주 철도와 개성-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 및 개보수 협의·추진
 -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
- 기타 부문
 - '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'를 부총리급 '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'로 격상
 - 백두산 관광 실시하고 백두산-서울 직항로 개설
 - 2008년 북경 올림픽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
 - 이산가족 상봉 상시 진행
 - 11월 중 서울에서 총리급 회담 개최, 11월 중 평양에서 남북 국방장관급 회담 개최

■ 개성공단 총 생산 2억 달러 초과(10. 11, 통일부)

- '07. 1월 말 총 생산액 1억 달러 초과 후 8개월 만에 2억 달러 생산 달성
- 개성공단 누적 총 생산액('07. 9월 말 기준) : 2억1,300만 달러(잠정 집계)
- *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('04. 12) 후 총 생산액 1억 달러 초과까지는 2년 1개월 소요



- '07. 10월 현재 개성공단에서 가동 중인 기업은 총 45개임
- △섬유·봉제 21개, △전기·전자 5개, △금속·기계 17개, △화학 2개

<1단계 분양·입주 현황>

구 분	시기	공장부지 면적	기업수	가동기업
1차분양 (시범단지)	2004.6	9만㎡	26	26
2차분양 (본 단 지)	2005.9	17만㎡	51	19
3차분양 (본 단 지)	2007.6	175만㎡	182	-
총 계		201만㎡	259	45

■ 대북 식량차관 1차 분배현장 확인(10. 16, 통일부)

- 정부는 매 10만 톤 수송완료시마다 남측 인원이 북한 분배현장을 확인한다는 합의에 따라 16일 개성 2곳, 고성 3곳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
 - 현장방문지역 : 개성 제3·8 식량공급소, 고성 읍·조양·온정 식량공급소
- 주요 확인 내용
 - 1개월에 2회(1일, 16일) 분배
 - 분배 대상을 직업, 연령 등에 따라 9등급으로 분류해 분배
 - 세대별로 식량공급카드를 운영

■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 준공(10. 24,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등)

-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3일 개성공단 본단지내 아파트형 공장 현장에서 개성 아파트형 공장 준공식을 개최
 - 참석자 : 이윤성 국회 산업자원위원장, 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, 김철두 산단공 이사장 등 300여명
- 개성 아파트형 공장 개요 및 현황
 - 연면적 2만7천880㎡, 지하1층~지상5층, 공장동과 지원동으로 구성, 공장동은 규모에 따라 6가지 형태로 분류(396㎡~1천983㎡)
 - 현재 공장동에 섬유·의류 계통의 32개 업체 입주, 2천700여명의 북측 근로자 근무
 - 현재 지원동에 산단공 개성사업소, 교육훈련센터, 제품 전시장 등 6곳의 지원시설 및 33~36㎡ 규모의 기숙사 71개실 구비

■ 유엔, 북한 홍수 피해 지원자금 1천130만달러 모금(10. 24, 연합)

- 유엔 인도주의문제조정국(OCHA)은 북한 홍수 피해 지원용으로 요청된 1천410만 달러 중 80%인 1천130만여 달러가 모금됐다고 밝힘

-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(CERF)이 300만 달러, 한국이 200만 달러, 호주가 200만 달러를 출연
 - 영국, 캐나다, 핀란드, 노르웨이, 룩셈부르크, 터키 등도 동참
- 유엔 인구기금도 CERF 자금으로 북한내 240개 의료 시설에 의료 기기들을 제공 중

■ 북한 안변에 30만평 조선단지 조성 추진(10. 24, 매일경제 등)

- 김철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“안변시에 99만㎡(약 30만평) 규모로 1단계 조선협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한국조선공업협회와 협의했다”고 밝힘
- 산단공은 연내 북한에 답사팀을 보내 사업의 기반, 타당성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
- 산단공이 추진 중인 조선협력단지 1단계 조성안에 따르면 기자재 기업 20개와 조선 업체 1개가 안변시에 입주할 예정
 - * 안변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조선협력단지 건설이 합의된 곳임

■ 독일계 기업 개성공단 입주 확정(10. 25, 한국경제 등)

- 한국토지공사는 독일 프레틀그룹의 한국 법인인 한국프레틀과 개성공단 1단계사업 부지 분양을 체결했다고 밝힘
- 한국프레틀은 개성공단 외국기업 전용부지 6개 필지 중 전기전자 업종으로 계획한 1만 653㎡(3천2백평)에 입주 계약을 체결
 - * 독일 프레틀그룹은 미국, 멕시코, 중국 등 16개 국가에 50여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, 한국프레틀은 1995년에 설립되어 차량용 조명부품과 전기장치를 제조하는 전기전자업체임

■ 제3차 경제·에너지협력 실무회의 개최(10. 30, 연합뉴스)

- 남·북한, 미국, 중국 등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29~30일 판문점 ‘평화의 집’에서 제3차 경제·에너지협력 실무회의를 개최

- 주요 참석자 : 한국 임성남 북핵외교기획단장, 북한 현학봉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, 미국 커트 통 백악관 국가안보회의(NSC) 아시아경제담당관 등
- 주요 회의내용
 - 중유 95만t 상당의 에너지 지원을 45만t의 중유와 50만t의 비중유로 구분하기로 결정
 - 매달 5만t 상당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재확인
 - 비중유로 제공할 품목의 리스트 및 중유 가격의 설정 기준 협의
 - 일본은 현재 상황에서는 중유 지원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임

■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개최(11. 5, 통일부)

- ‘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’이 11. 5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
- 주요 합의내용
 - 평양시 고읍리 일대에 상시 사육두수 5천두(연산 1천t, 사업기간 2년) 규모로 양돈협력 사업을 진행
 - 남한은 양돈협력사업 관련 시설 건축과 종돈·사료 등 사육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, 물자를 차관방식으로 제공(차관합의서 별도 합의)

■ 북한 발전소설비 1차분 제공방안 합의(11. 13, 연합)

- 남북한, 중국은 13일 북한 핵 신고, 불능화의 이행 대가로 북한에 지원될 발전소 개보수 설비 1차 제공분의 제공 방안에 합의
- 주요 합의사항
 - 남한은 금년내 철강재 중심의 1차 제공 품목 공급을 개시
 - 국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발전소 설비 물품을 조달
 - * 제3차 경제·에너지협력 실무회의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을 중유 45만t과 중유 50t 상당(약 2억 달러)의 발전소 설비로 제공하는 데 합의한 바 있음

■ (주)아천글로벌코퍼레이션·(주)사인시스템, 북한과 동해모래 채취권 계약(11.13, 연합)

- (주)아천글로벌코퍼레이션, (주)사인시스템은 12일 개성에서 북한 조선아시아·태평양평화위원회 및 개선총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 동해모래를 20년간 채취할 수 있는 정식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
- 사인시스템은 15일 모래채취선 3척을 투입했고, 앞으로 수십척의 모래채취선을 북한으로 투입할 예정
 - 사인시스템은 6개월 이내 월 100m³, 연간 1천200m³ 이상을 채취해 국내 수요처에 공급하고 해외에 수출할 계획

■ 제1차 남북총리회담 개최(11. 16, 통일부 등)

- 남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북한 김영일 내각총리는 서울에서 남북총리회담을 개최('07. 11. 14~16)하고, 「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」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」를 채택

□ 주요 합의내용

- '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' 설치
 - '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 사업에 착수, 12월중 분과위원회 개최
 - 해주경제특구·해주항 개발 : 금년중 실무접촉·현지조사, '08년 사업계획 확정
 - '08년내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착수, 12월중 한강하구 공동이용 현지조사 실시
-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
 - '08년부터 개성-평양 고속도로·개성-신의주 철도 개보수 추진, 금년중 현지조사 실시
- 조선협력단지 건설
 - '08년 상반기 안변지역의 선박용 블록공장 건설에 착수
 - 12월중 안변·남포지역 제2차 현지조사 실시

○ 개성공단 건설

- '08년 안에 2단계 개발에 착수(12월중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·지질조사 실시)
- 개성공단과 개성-평양간 고속도로 연결, 통근열차 이용
- 12.11 문산-봉동간 철도화물수송 개시
- 개성공단 통행·통신·통관 문제 개선조치 실시
 - 통행 : 금년내 07시~22시까지로 출입시간 확대, 출입절차 간소화
 - 통신 : 금년내 인터넷·유무선 전화 서비스 시작, 금년내 통신센터 건설 착공
 - 통관 : 통관의 신속성과 과학성 보장을 위해 물자하차장 건설 추진

○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·운영

-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(부총리급) 구성, 12. 4~6 제1차 회의 개최(서울)

■ 개성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개소식(11. 22,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, 연합)

- 개성공업지구 폐수종말처리장 개소식이 김동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, 손주석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등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11. 22일 개최
- 개성공업지구 폐수종말처리장 개요
 - 개성공업지구와 주변(사천강, 임진강 등)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3만t 처리 시설 규모로 건립
 - * 현재는 수요를 감안해 하루 1만5천t 처리 용량만 운영 중
 - '05. 4월 착공되었으며, 이후 300억원을 투입해 금년 6월 준공하고 7월부터 환경관리공단이 위탁 운영
 - 남한에서 '08.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 중

■ 남북공동자원개발 흑연 제품 최초 국내 반입(11. 23, 통일부)

- 대한광업진흥공사와 북한 새별총회사가 합작(사업명 : 정촌흑연광산개발사업)하여 생산한 인상흑연 제품 200t이 11. 24일 최초로 국내에 반입

- 정춘흑연광산개발사업을 통해 매년 3,000t의 흑연을 생산, 이중 1,830t이 국내로 반입될 계획
- * 민간차원의 최초 남북공동자원개발 사례인 정춘흑연광산개발사업은 '03년 통일부로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되어 왔으며, 금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흑연제품이 생산 중

■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, 남북협력기금에 5천만원 기탁(11. 26, 연합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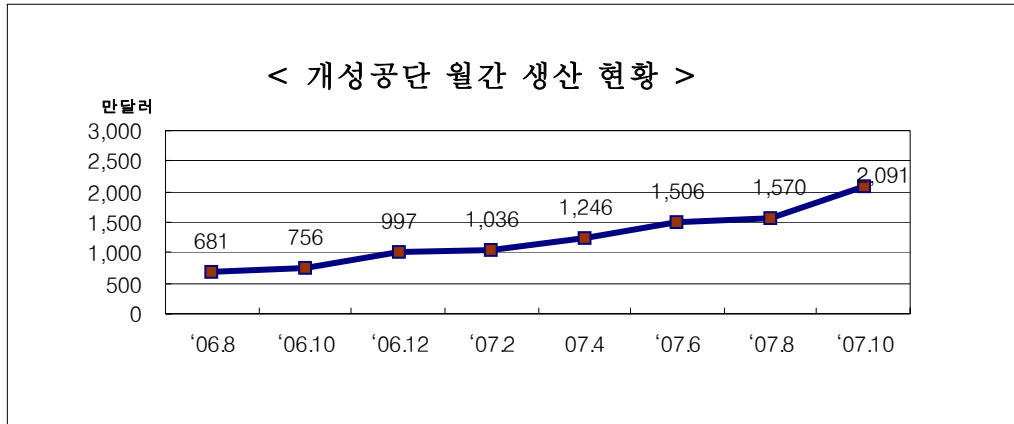
- 한국수출입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모금한 후원금 5천만원을 11. 26일 남북협력기금에 기탁
- 통일부 장관은 26일 수출입은행에 출연수령증서와 감사패를 전달
- * 수출입은행은 '00년도 1천만원, '06년 1천2백만원을 기탁한 바 있음
-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도 26일 2천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 기탁

■ 개성 관광 비용 1인당 18만원으로 책정(11. 27, 연합)

- 현대아산은 개성 관광 비용(당일 기준)을 현지 교통비, 식비 등을 포함해 1인당 18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힘
-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측에 개성관광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1인당 총 100달러(한화 9만2천원)라고 말함
- 개성관광은 12. 5일부터 시작되어,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300명씩 가능
- * 개성관광 일정 : 오전 - 박연폭포 · 관음사, 오후 - 민속여관 · 고려박물관 · 선죽교

■ 개성공단 월간 생산액 2천만 달러 초과(11. 29, 통일부)

- '07. 10월 개성공단의 월간 생산액이 2,09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
-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1인 평균생산액이 전월 대비 10.4% 상승
- * 11. 26일 현재 북측 근로자수 20,634명(11. 5북측 근로자 2만명 상회)



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(12. 6, 통일부 등)

-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12. 4~6일 서울에서 개최
- 참석자 : 남측 - 권오규 부총리 등 7명, 북측 - 전승훈 내각 부총리 등 7명

□ 주요 합의내용

- 철도·도로 공동이용과 물류유통 확대를 위한 개보수 협력
 - '08. 2. 12~13일 '도로협력분과위' 및 '08. 1. 22~23일 '철도협력분과위' 개최(개성)
- 안변·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해주직항로 이용 협력
 - 2차 현지조사를 12. 11일부터 진행
 - 12. 25~28일 '조선 및 해운분과위' 개최(부산), 조선협력 및 해주직항로 문제 협의
- 개성공단 활성화
 - 12. 17일부터 2단계 개발 측량 및 지질조사 시작
 - 12. 20~21일 '개성공단분과위' 개최(개성)
- 자원개발 협력
 - 자원개발협력 확대를 위해 '지하자원개발 분과위' 구성, '08. 1월 중 제1차 회의 개최(개성)

-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장치 마련
 - ‘경협제도분과위’ 구성 및 ’08. 4월 초 제1차 회의 개최(개성)
 - 출입·체류·통신·통관, 청산결제, 상사중재 등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보장 문제 협의
- 남북경협공동위 제2차 회의를 ’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개최

■ 경공업 원자재 대북차관 1차 상환 광물 국내 반입(12. 6,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)

- ’07년 경공업 원자재 대북 현물차관 제공(8천만 달러 상당)에 따른 초년도 상환 대가 3% 중 1.5%(120만 달러)에 해당하는 북한산 아연괴 500t이 12. 11일경 인천항에 도착
 - 남북은 7. 7일 경공업 원자재 제공 진척도(50%, 100%)에 따라 원자재 제공금액의 1.5%씩 2회에 걸쳐 아연괴, 마그네사크링카로 상환하도록 합의
 - * 12. 6일 현재, 경공업 원자재는 약 5,700만 달러(71%) 상당의 물량이 북측에 제공된 상황임

■ 경의선 문산-봉동간 철도 개통(12. 11, 통일부 등)

- 11일 문산역(남측)-봉동역(북측) 구간에서 개성공단 화물 수송을 위한 남북간 화물열차 상시·정기운행이 시작
- 문산-봉동간 철도 개요
 - 길이 : 16.5km(문산~MDL : 12km, MDL~봉동: 4.5km)
 - 운행 횟수 : 매일 1회(주5일)
 - 열차 구성 : 기관차 1량, 컨테이너 화차 10량, 차장차 1량
 - 홀수년도에 남측 열차, 짝수년도에 북측 열차 운행

■ 남북관리구역 통행·통신·통관 군사보장합의서 채택(12. 14, 통일부 등)

- 남북은 판문점에서 제7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12. 12~14일 개최하고 남북관리구역(개성공단 등)의 통행·통신·통관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를 채택

- 참석자 : 남측 - 이흥기 국방부 정책기획관 등 4명
북측 - 김영철 인민군 중장 등 7명
- 주요 합의내용
 - 매일 07:00~22:00 상시적 통행 보장
 - 일요일 등 공휴일의 통행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
 - '08년부터 인터넷과 유선 및 무선전화통신을 허용
 - 통신센터 건설 및 운영방식 등은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
 - 선별검사방식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, 세관검사장 신설·확장

■ 개성공단 비즈니스호텔 20일 착공(12. 14, 매일경제)

- 개성공단 내 비즈니스호텔 건설이 20일 준공되어 '08년 말에 완공될 예정
- 개성공단 비즈니스호텔사업 참여회사
 - 건설사 : 한누리주(주주 : 토지공사·한창개발·CNC종합건설·현대아산), 시공사 : 현대아산·CNC종합건설, 호텔운영회사 : 한창개발(예정)
- 호텔 개요 : 투자금 125억원, 면적 6,613㎡, 지상 5층, 구성 - 객실 101실·각종 회의실·연회장·식당 등